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A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2호(1955년 6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8년 7월 31일(화)

## 대중회 장학재단 ·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 대중회 운영 발전에 관한 간담회 개최

- 종보 편집위원회 회의 - 발전위원회(가칭) 예비모임 - 지파총회 회장회의

대중회는 2018. 7. 6(금) 대학교수, IT업계 종사자, 전문 편집인, 기업인 등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보 발행 개선, 정관개정, 대중회 운영 발전위원회 설립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7. 13.(금) 지·파총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송조돈목의 실천, 뿌리교육과 장학사업의 활성화, 찬경회관 이전 등 대중회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위 간담회에서 발표된 의견과 논의된 내용

#### 대중회 8대사업 추진논의

- ① 장학재단 설립    ② 역사박물관 건립
- ③ 서울 찬경회관 이전    ④ 뿌리교육 활성화
- ⑤ 모바일 종보발간    ⑥ 송조돈목 실천
- ⑦ 서울 학사건립 검토    ⑧ 세계심씨교류사업

들을 모아 아래와 같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할 계획이

며, 일가 여러분께서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거나 이외 대중회 발전을 위한 추가 사업 등 견해가 있으시면 대중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계획서

2018. 7. 30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정관 개정	○ 회장단 구성원에 전문가 등 보강 ○ 대중회운영발전위원회(장학위원회, 청년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등) 설립 및 근거 마련	○ 2018. 8월 중 정관 개정안 마련 ○ 회장단, 이사회 거쳐 총회 상정
종보 발행 개선	○ 젊은 세대에 도움 되는 기사 게재 및 편집으로 그들의 관심과 참여유도 ○ 인터넷 모바일 종보 발간 추진 ○ 대학생과 주부기자단 위촉 및 활용	○ 2018. 8~10월 모바일 종보 준비 및 대학생과 주부 기자단 모집
송조돈목의 실천	○ 제향과 뿌리교육 등 행사에 많은 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 (종보 및 간담회) ○ 전국 규모의 "송조돈목 실천의 날" 행사 개최	○ 상·하반기 년 2회 지파총회 간담회 개최 ○ 년1회 전국 종인모임 이벤트 진행
뿌리교육의 활성화	○ 뿌리교육에 장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 ○ 젊은 세대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개발	○ 수시 홍보 ○ 2018. 8~12월
장학사업의 활성화	○ 장학위원회 설립 운용 ○ 장학재단 설립 검토 ○ 젊은 세대의 의견청취를 위한 포럼 검토	○ 정관개정 근거 마련
찬경회관 이전	○ 노후된 현 회관을 처분해서 주차장이 넓은 곳으로 이전 ○ 필요시 종재 일부 처분하여 이전기금 마련 ○ 역사박물관, 학사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 2019년도까지 중·장기적 검토
청송심문역사 박물관 건립	○ 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 구성 ○ 지·파 총회와 협동 추진 검토 ○ 대중회 회관 이전과 연계 추진	○ 상 동
서울에 학사(學舍) 건립	○ 지·파 총회와 협동 추진검토 ○ 대중회 회관 이전문제 등과 연계	○ 상 동
기타사항	○ 지·파 총회와 협의하여 군산 진포대첩 승전기념탑 건립비 지원 검토 ○ 대중회 이사회를 파총회 추천을 받아 구성	○ 2018. 8~12월 ○ 회장단, 이사회 심의검토

## 새 대중회장에게 바란다



### 심동섭

현령공종회장  
종보편집위원

우리 청송심씨대중회는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일가들의 화합단결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다. 삼한삼국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가끼리 화합하면서 조상을 섬기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금년에는 대평 새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희망

과 기대를 가지고 더욱 발전하리라 믿고, 큰 박수와 함께 축하를 드리며 작은 희망 하나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새 회장님은 일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나라의 큰일을 맡아 경영하시던 분이려 굳이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유림(儒林)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타 성씨(他 姓氏)의 종회운영모습을 보아왔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사례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이다.

모든 성씨의 대중회는 지역총회와 파총회로 구성되어있는데, 지역총회와 지파총회(支派宗會)는 그 종회의 회장이나 총무가 맡아서 알차게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되는 타 성씨의 종회모습을 보면 일가 전체를 아우러야 할 대중회장이 자기가 소속된 지파에 치중하다보니 다른 파의 불평과 원성을 사고 결국은 불화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소송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가끔 보아왔다.

한 때 우리 청송심씨도 대동세보를 간행하면서 양쪽으로 나뉘어졌던 아픈 역사를 겪은 적이 있지만, 그 뒤 인터넷 족보로 발전하면서 전국 어느 성씨 족보보다 잘 편집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청송심씨대중회는 매우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5처 2단소의 정성스런 송조사업, 6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정안공 선조의 재각 건립이나 후

진양성을 위한 뿌리교육과 장학사업, 알찬 종보 발행,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큰일을 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는 그 어떤 조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를 계기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타 성씨의 종회운영사례를 말씀드린바 있지만, 새 회장님께서 청송심씨대중회의 총책임자로서 일가 모두가 화합하고 조상을 섬기는 일에 신명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각 지파총회는 지파회장에게 맡기고, 규모가 큰 종회나 작은 종회나, 종재가 많은 종회나 빈약한 종회나, 일가 모두를 아우르고, 소외되고 그늘진 종회가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모두를 보살피 화기애애한 종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새 회장님의 취임을 맞아 일가 모두가 환영하며 청송의 만지송(萬枝松)은 더욱 푸를 것이며, 조상을 섬기고 일가간의 정이 더욱 두터워지며 날로 발전하는 대중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4)

# 두 아들을 동량으로 키우리

## - 3세 청화부원군 용(龍) 할아버지



심후섭 (沈厚燮)

중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교육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2세 지후공(祗侯公) 연(淵) 할아버지께서는 남매를 두셨는데 아드님은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 용(龍) 할아버지 이시고, 따님은 나중에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내신 바 있는 민안부(閔安富: 驪興人) 공에게 출가시키셨어.

전리판서는 전리사(典理司)의 으뜸 벼슬로서 정2품이었는데 오늘날 장관(壯觀)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이었어. 그리고 전리사는 고려시대 중앙관부로서, 문관의 선임(選任), 공훈(功勳), 예의(禮儀), 제향(祭享), 조회(朝會),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였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서였어.

뒤에 용 할아버지의 맏아들인 덕부(德符) 할아버지도 이 전리판서를 지내셨지. 지후공 할아버지의 사위 민공(閔公)은 고려 말 문장대가(文章大家)로서 그 이름을 널리 떨쳤어. 그러다가 고려조가 망하자 우리 4세조 악은공(岳隱公: 諱 元符) 할아버지와 함께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셔서 안타깝게도 순절하시고 말았어. 용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낳으셨어. 맏이는 청성백 덕부(德符) 할아버지이고 둘째는 악은공 원부(元符) 할아버지였어.

‘이 아이들을 잘 키워 동량(棟梁)이 되게 해야 집안이 흥해질 수 있다.’

용 할아버지는 어디든지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셨어. 용 할아버지는 그 무렵 청송에서 경북 안동군 태릉촌(泰陵村)으로 옮겨서 살고 계셨어. 태릉촌은 오늘날 와룡면(臥龍面)을 말해.

덕부 할아버지가 열 세 살 되던 해였어. 용 할아버지는 당시 학문으로 이름 높

았던 가정(稼亭) 이곡(李穀) 선생이 처가(妻家)가 있는 경북 영해(寧海)에 자주 들린다는 소문을 들었어. 영해 고을은 안동과 멀리 떨어진 동해안에 있었어. 이곡 선생은 목은(牧隱) 이색(李穡) 선생의 아버지로 당시 원(元)나라에 가서 과거에 장원급제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고, 문장도 대가(大家)였어. 이곡 선생이 쓴 <죽부인전(竹夫人傳)>, <차마설(借馬說)> 등은 지금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야.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선비를 만나게 하고 학문을 익히게 해야겠다.’

용 할아버지는 용단(勇斷)을 내리고 집안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영해로 이곡 선생을 찾아갔어.

이곡 선생은 용 할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했어. 하지만 용 할아버지는 이곡 선생을 깎듯이 예우하며 자식 교육을 부탁했어.

“선생님, 제가 뜻이 있으나 부족함이 많아 시골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만큼은 눈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우리 3부자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맏이(덕부)가 열세 살이라 하니 제 아이(목은)와 동갑이로군요. 같이 어울리게 하여 글을 읽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비슷하니 친구로 지냈시다.”

이곡 선생의 아들 이색의 나이가 1328년 생으로 우리 덕부 할아버지와 같았던 거야.

“아닙니다. 우리 3부자 모두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때부터 용 할아버지 3부자는 모두 이곡 선생에게 나아가 글을 읽었어. 그러다가 이곡 선생이 서울(당시는 개경)로 가게 되자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나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토론하였어.

덕부 할아버지는 이곡 선생 문하에서 공부한 지 4년만인 17세 때에 좌우위참군(左右衛參軍)에 임명되었어. 오늘날로 치면 군에 들어가 초급 장교가 되신 거야.

이듬해에는 가정(稼亭) 선생의 아들 이색 선생이 동갑동문(同甲同門)이라며 덕부 할아버지를 반갑게 찾아오기도 했어. 두 사람은 나라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며 꿈을 키웠어.

덕부 할아버지는 열아홉 살 때에 사은사직장(司醞寺直長)이 될 만큼 민첩하고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았어.

이듬해 스무 살이 되던 해에는 덕부 할아버지가 목은 선생을 찾아가 함께 시(詩)를 지으며 우정을 나누기도 했지.

이 무렵 원부 할아버지도 문신(文臣)으로 나아가 계속 벼슬이 높아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은 무신(武臣)으로 동생은 문신(文臣)으로 나아간 거야.

그리고 용 할아버지 또한 벼슬자리에 나아가 전리정랑(典理正郎)에 오르셨어. 전리정랑은 전리사(典理司)의 중요한 직책이었어.

그 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다시 시골로 내려오셨지만 용 할아버지는 이처럼 두 아들은 훌륭하게 키우셨지.

그리하여 뒷날 덕부 할아버지의 벼슬이 아주 높아지게 되자 용 할아버지에게도 나라에서 ‘문하시중청화부원군(門下侍中靑華府院君)’이라는 칭호를 내리게 되었어. 문하시중은 고려 시대 문하성(門下省) 으뜸 벼슬이었고, 부원군(府院君)은 정1품 이상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에게 내리던 칭호였어.

그러니까 용 할아버지는 덕부 할아버지를 잘 키우시고 나라를 위해 걱정을 많이 하신 공로로 아들보다 더 높은 이 칭호를 받게 되신 거야.

그 뒤, 이곡 선생은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에 명당(明堂)이 있다며 용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지후공 산소를 옮기게 하였어. 명당이면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텐데 우리 용 할아버지에게 넘겨줄 만큼 이곡 선생과 용 할아버지의 우정이 깊었던 거야.

우리는 용 할아버지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특히 자녀 교육과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깊이 배워야 하겠구나.



① 3세조 용 할배 묘비  
② 청화부원군(諱:龍),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 19-6 소재  
③ 3세조 용 할배 묘소 뒷모습



# 청송심씨의 소식지 宗報 역사

현재 발행하고 있는 청송심씨의 소식지 '청송심씨종보'(靑松沈氏宗報)는 1996년 2월 20일에 창간됐지만, 종보의 뿌리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에 의하면 첫 종보는 1955년 6월 5일에 월간으로 발행한 '청송보'(靑松報)였다. 청송심씨둔목회(靑松沈氏敦睦會)를 결성하고 만든 것이었다. 당시 회장은 심의소(沈宜韶), 총무는 심상룡(沈相龍) 씨로 사무실은 서울 중구 태평로에 두었다.

그러나 이 '청송보'가 대동세보 '정유보(丁酉報)'가 발간되던 1957년에는 이미 19호가 발간되었으나, 1959년도 이후로 불투명하여 청송보가 몇 차례 발간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종보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71년 7월부터. 그보다 두 달 앞선 1971년 5월 30일 대종회가 창립된 것이 계기였다. 소식지 이름은 예전 것을 다시 가져와 '청송보'(발행인 심성택·沈聖澤, 편집인 심재호·沈載鎬)로 했고, 역시 월간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지도 5년을 가지 못했다.

종보를 복간한 것은 1976년. 당시 대종회 회장이었던 심명구(沈明求) 회장은 본인을 발행인으로, 상임부회장 심상득(沈相得) 씨를 편집인으로 하여 '청송보'를 월간으로 다시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도 총 20번을 발간하고 이듬해 정간한다.

종보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14년을 기다려야 했다. 1991년 1월 20일 찬섭(燦燮) 일가께서 '청송의 뿌리'를 월간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송의 뿌리'도 3년 반 만인 1994년 9월 20일 45호를 마지막으로 휴간에 들어간다. 이처럼 휴간과 복간을 거듭한 것은 꾸준히 소식지를 발간할 만큼 경비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보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대종회는 종보를 정간한지 1년 4개월 후인 1996년 2월부터 지금의 '청송심씨종보'를 발간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5월에 발행한 것이 131호. 종보 역사로 보면 '청송심씨종보'는 22년 동안 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발행된 셈이다.

그동안 '청송심씨종보' 발행인은 대종회장인 심명구(沈明求)로 시작해 갑보(甲輔)회장을 거쳐 지난호인 131호부터는 새로 대종회를 이끌게 된 대

평(大平) 회장이 맡고 있다. 편집인은 상필(相弼) 총무를 거쳐 문화이사인 재열(載烈), 재서(載緒)에 이어 지금은 갑택(甲澤) 문화이사가 애쓰고 있다. 이상이 청송심씨가 발행해온 종보의 개략적인 역사이며 '청송심씨종보' 이전에 발간한 '청송보' '청송의 뿌리'는 대종회에 보관되어 있다. 종보는 청송심씨 일문의 역사이자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대종회는 1996년 2월에 나온 '청송심씨종보' 창간호부터 2004년 11월의 50호까지를 묶어 2006년에, 2005년 1월의 51호부터 2013년 3월의 100호까지를 묶어 2014년에 각각 축쇄판으로 발행했다. 축쇄판 발행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우리 대종회는 이제 중년에 들어섰다. 지난 4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처묘소(五處墓所)의 관리와 단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 나라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다. 2000년에는 30년 만에 다시 대동세보(경진보·庚辰譜)를 발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우리 대종회는 송조돈목의 기초위에 날로 번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종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종보도 더욱 알차게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그런 각오의 일환으로 종보의 뿌리를 '청송심씨종보'의 창간일인 1996년 2월 20일이 아니라 최초의 '청송보'를 발행했던 1955년 6월 5일로 삼고, 7월에 발행하는 '청송심씨종보' 132호부터 이를 종보 첫 페이지에 명기할 계획이다. 종인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

심규선(동아일보 대기자)



청송보 1호 1955년 6월 5일 | 청송의 뿌리 1호 1991년 1월 20일 | 청송심씨종보 1호 1996년 2월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 아들의 교육 (옛 선인의 가르침)

청백리 김수평의 손자 중 김학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조 때 명필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김학성의 어머니 임씨는 일찍 과부가 되어 아들 형제를 사바느질로 어렵게 키웠습니다. 이 형제가 철이 들지 않았던 시절, 어느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처마의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학성이 어머니 귀에 이상하게 들려 왔습니다.

낙숫물 떨어지는 그 곳을 파 보았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솥이 나왔습니다. 이 금은보화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성이 어머니는 이 솥을 다시 묻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뒤 어려움 속에서도 형제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학성이 어머니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두 아들을 불러 놓고 금은보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물이란 바로 재앙이다. 마땅히 궁핍을 겪어 보아야 사람이 되는 법인데 까닭 없이 큰 재물이 생기면 힘들여 공부하려 들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집을 옮겨 돈 생각을 끊었다.

“너희가 먹고 입고 배운 돈은 모두 내 열 손가락이 일궈 낸 것이란다.”

그로부터 학성이 어머니는 끝내 금은보화가 있는 그 솥 묻은 위치를 밝히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 반지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하게 될 때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

“예, 알겠습니다. 폐하” 세공인은 다윗왕의 명령을 받들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충족할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승리의 기쁨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글귀를 새기면 좋겠나이까?”

솔로몬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세공인은 탄복하면서, 즉시 돌아가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당연히 다윗 왕도 이 글귀를 보고 감탄하였답니다.



글 제공 : 대종회 관리부장

# 심청전(沈淸傳)의 고향 황주 도화동

심청전은 한국의 대표소설로서, 활자본 2권1책으로 작자와 연대 미상이며 심청왕 후전(沈淸王后傳)이라고도 한다.

심청전은 조선후기에 나온 국문소설로 작자와 저작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완관본인 을사본(乙巳本), 경관본, 일제시대에 출판된 심청전 4종, 1986년에 출판된 국립국악원[국악전집14, 심청가] 등을 살펴볼 때, 심청전의 주 무대는 황주 도화동으로 예로부터 황주지역에 전해 내려오던 소설이다.

### 심청전[乙巳本, 완관본]

“송나라 말년에 황주 도화동(桃花洞)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은 심(沈)이요, 이름은 학규(鶴圭)라. 누대(漏代)잠영지족(簪纓之族)으로 문명(文名)이 자자 터니 가운(家運)이 영체(零替)하여 이십 안에 안맹(眼盲)하니, 낙수청운(洛水靑雲)에 벼슬이 끊어지고, 금장자수(錦帳刺繡)에 공명(功名)이 비었으니 향곡(鄉谷)의 가난한 신세 가까운 친척 없고, 곁하여 안맹하니 뉘라서 대접하랴마는 양반의 후예로 행실이 청렴하고 지조가 강개하니 사람마다 군자라 칭하더라”.... 생략

전해내려 오는 심청전은 첫머리에 “황주골 도화동에 심학규(沈鶴圭)라는 사람이 있었으니”로 시작된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경의선(京義線) 철도를 북으로 올라가면 황주역(黃州驛) 바로 앞 역이 침촌역(沈村驛)이라는 소역(小驛)이 있다. 이 침촌(沈村)은 약 500호의 면 중심지로 5일장이 서는 곳이었다.

심청전의 황주 도화동의 도화동은 설화의 작자가 시적(詩的) 표현을 하려는 것이고, 심학규 즉 심봉사의 산 곳은 바로 이 침촌(沈村)인 것이다.

옛날 이곳은 沈氏(성으로 읽을때는 심으로 읽음)의 집성촌이었던 것이다. 이 근방에는 정촌(鄭村), 승촌(承村) 등 성을 딴 집성촌이 많이 있었다. 침촌에서 동으로 5리(2km) 정방산(正方山)이 솟아있고, 그 산록에 널리 알려진 성불사(成佛寺)가 있다.

이 밖에도 이 근처에는 토술사, 대흥사 등 현존하는 사찰과 고려 불교 전성시대에 세워졌다가 이조의 억불정책으로 폐허로

된 절터가 많이 있었다. 지금은 100여호의 파평윤씨(坡平尹氏)가 사는 집성촌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중골”이다.

옛날에는 “중”이 모여 살던 곳인 것이다. 침촌에서 북으로 12km쯤에 철도(鐵道)북단에서 대동강과 재령강이 합류하여 황해(黃海)로 흐르는데 그 철도 북쪽 대동강 변에 정족산(鼎足山, 솟발이)라는 야산이 있었다.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었고 그 산허리에 기자정(箕子井)이라는 좋은 우물이 있었다. 이 기자정이라는 이름은 평양의 기자묘(箕子墓)와 같이 옛날의 모화사상(慕華思想)중국의 문물을 흠모하여 따르는 사상에서 지어진 것이고, 실은 고려시대의 대중국 무역상인(貿易商人)들의 집단촌에서 쓰던 우물인 것이다. 즉 이곳은 평양의 관문포구(關門浦口)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대동강구(大同江口)를 나가 황해를 건너 당시 중국의 송(宋)나라 중심지 남경(南京)으로 가려면 웅진반도와 백령도 근해를 거쳐야 하는데 이곳에 “인당수”라는 아주 물살이 거친 항로가 있어서 무역선인들은 이곳에 처녀인신공희(處女人身供犧)처녀를 신에게 바치다.)를 하여 용왕(龍王)에게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여 개울에 빠져 헤매다가 스님에게 구출된 심봉사는 서러운 김에 덧없이 스님에게 공양미 30석의 시주를 서약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안타까운 아버지 심봉사를 위해 심청은 부친의 개안(開眼)을 기원하는 불심(佛心)과 효심(孝心)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남경상인들에게 팔려가 인당수에 제물로 던져진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실제로 고려시대에 이 지방에 있었던 일로 전해진다.

설화가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서럽고 허무한 일이겠는가? 설화의 작자는 용왕으로 하여금 심청의 효행을 칭찬하며 연화(蓮花)에 올려 감로수(甘露水)를 마시게 하였다.

그 연꽃을 해상에 띄워 돌아오는 남경상인에 발견되게 하여 임금님께 헌상(獻上)케 하고, 왕비가 되게 하여 맹인잔치를 베풀고 심봉사가 눈을 뜨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슬픔에서 환희로 마감하므로 순진한 옛 독자들을 눈물과 환호로 즐겁게 하고

권선징악(勸善懲惡)착한일을 권장하고 악한일을 징계 함)과 선행 후에 필유여경(善(孝)行筆有餘慶)임을 가르쳤던 것이다. 후반부분 픽션임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삼대(三大)설화인 춘향전, 흥부전도 모두 같은 형식이다. 그래야만 우리 옛 민중들의 정서에 맞았던 것이다.

심청전에 관한 또 다른 설화로는 전남 곡성 관음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대략 다음과 같다.

“육과현 관음사 사적” 설화에 의하면 대흥현(현재 충남예산군 대흥면)에 원량(元良)이라는 맹인이 외동딸 홍장(洪莊)과 살고 있었는데, 이 홍장은 매우 아름답고 정숙하였다.

하루는 흥법사(현위치 불명)의 화주승이 원량에게 시주를 권하였고, 원량은 딸 원홍장(洪莊)을 팔아 법당의 자금으로 쓰라고 시주하였다. 시주를 받은 승려와 홍장은 걸어 가다가 소량포에서 중국 진국인(晉國人)을 만나 그 진국인에게 금은보화에 팔려 진국으로 가 아름다움이 황제의 마음에 들어 황후(皇后)가 되었다. 황후는 늘 고향생각이 간절하던 중 원불(圓佛)로서 관음상을 제조하여 동국으로 표류하여 보냈다.

이배는 육과의 처녀 성덕(聖德)에게 발견되어 성덕은 이 배안에서 금으로 만들어진 관음상을 발견하고 이를 안치하려고 등에 짊어지니 솜털같이 가벼웠다. 그런데 산봉우리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무거워져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관음상을 안치하고 절을 세워 성덕산 관음사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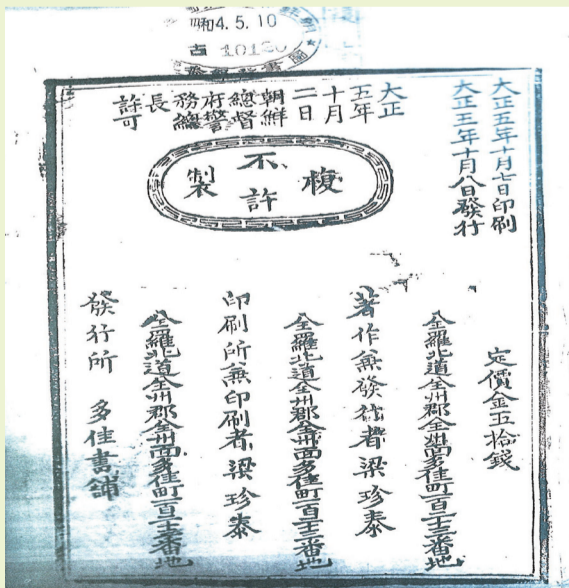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중국 진(晉)나라 영강(永康)년대라 하였으니 AD300년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설화이며, 우리나라에 불교가 고구려에 처음 전래된(AD372년)보다도 앞서는 것이다. 여기의 홍장(洪莊)을 심청(沈淸)으로 설화한 것이라 한다.

심청전은 고려의 북교 전성시대(중국 송나라시대)에 있었던 일로 그 효행이 기특하여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다가 근세에 이르러 언문(한글)이 널리 통용되자 인본(印本)으로 만들어져 전해지고 있는 설화인 것이다.

- 황주 중앙군민회 회장 윤관규 -



황주 침(沈)촌리 지도(← 표시부분 인당수)



심청전 완관본 표지



심청전 본문

## 상황(태종)께서 말하기를, “심 온(沈 溫)은 국왕의 장인이니...” 五世祖 安孝公(諱: 溫) 600주기 기신제향

### 세종장현대왕실록 (즉위년1418)

**8월 23일** 상왕(태종)이 말하기를 “사은사는 반드시 친척을 보내야 한다. 한 장수가 비록 친척이긴 하지만 심 온(沈 溫)만 못하고, 또한 황 엄(黃 儼)은 평소에 온 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온이 간다면, 엄은 반드시 정성을 다할 것이다.”하고, 이에 장수대신에 온 을 보내기로 하다.

**8월 27일** 심인봉(沈仁鳳), 이 식(李 植), 김귀보(金貴寶)를 모두 좌군총제(佐軍總制)로, 허 권, 심 정 을 모두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總制)로, 심 징(沈 澄)을 경창부윤(慶昌府尹)으로 임명하다.

**9월 1일**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양정(涼亭)에 나아가 사은사(謝恩使) 심 온(沈 溫)과 부사(副使) 이 적(李 迹) 및 박 신을 전송하고, 상왕은 심 온에게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다.

**9월 2일** 상왕이 말하기를, “심 온(沈 溫)은 국왕의 장인이니 그 존귀함이 비할 데 없으니 마땅히 영의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좌차(座次)는 두 정승과 상의 하도록 하라.” 하니 박 은(朴 崑)이 아뢰기를 “마땅히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의 위에 두어야 할 것이옵니다.”

**9월 8일** 상왕이 환관 황 도(黃 稻)를 보내어 문밖까지 심 온을 전송하게 하고, 임금은 한관 최 용(崔 龍)을, 중궁(中宮소헌왕후)은 환관 한호련(韓瑚璉)을 각각 보내어 연서역(延曙驛)에서 심 온을 전송하게 하다. 심 온은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0이 못되어 수상(首相)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다.

**9월 19일** 왕자 용(裕 세종의 셋째아들 안평대군)이 출생하니, 의정부와 육조가 하례하다.

**9월 25일** 이조에서 계하기를, 진보(眞寶)의 속현(屬縣) 청부(靑阜)는 곧 중궁의 내향(內鄉)이니 청 하건데, 승격시켜 청보군(靑寶郡 경북청송)으로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라.

**11월 22일** 의금부에서 강상인을 심문하니, 상인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본궁(本宮)에 계실 때에, 내가 일로 인하여 나아갔다가 동지총제(同知總制) 심 정을 궁문(宮門) 밖의 장막에서 만났는데, 심 정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금(內禁) 안에 시위(時衛방비)하는 사람의 결원이 많아서 시위가 허술한데, 어찌서 시기에 마쳐 보충(補充)하지 않느냐.”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만약 군사가 한 곳에 모인다면 허술하지 않을 것이다. 고 하였더니, 심 정이 말하기를, 만약 한 곳에 모인다면 어찌 많고 적은 것을 의논할 것이 있으랴,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이조 참판 이 관(李灌)의 집에 들으니 이 관이 말하기를, “요사이 어찌 드물게 오느냐”고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양전(兩殿 상왕 과 주상)에 진퇴(進退)하므로 인하여 여가가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 관이 말하기를 “두 곳에 사진(仕進출근)하니 어떠한가, 대개 모든 처사는 한 곳에서 나와야만 마땅한 것이다.”고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나의 뜻도 또한 이와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성법(成法법이 정해지다)이 된 것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하다. 또 전 총제(總制) 조 흡을 보았는데, 조 흡이 말하기를 “군사(軍事)는 마땅히 우리 상위(상위는 상왕)에서 나와야 될 것이다.” 의금부에서 세 사람을 체포하기를 청하니, 선지하기를 “비록 2품 이

상이 관원이라 도 공신(功臣)이 아니면 계문(啓聞임금에게 보고)함이 없이 바로 잡아서 가두라.”고 하다. 상왕이 원숙에게 물기를, “이 관이 한 곳이라 한 것은, 내 생각에는 나를 가리킨 것이다.” 고 하니 “이 관이 사리(事理)를 알고, 또 오랫동안 근신(近臣) 임금을 가까이모심이 되었으며, 분명히 내가 친히 정사(政事)를 청단(聽斷자세히 듣고 판단)하겠다, 는 분부가 있으셨으므로, 진실로 위의 하교 하옵심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모든 처사는 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 고 하고, 병사(兵事)라고 말하지 않으니, 신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고하다.

의금부에서 이 관과 심 정과 조 흡을 잡아서 대질(對質)하니 심 정이 말하기를, “나는 내금위(內禁衛)의 절제사가 된 까닭으로 상인(尙仁)과 시위(侍衛)의 허술한 것을 의논하였을 뿐이니, 군사가 두 곳으로 갈라져있다고 한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힘써 이를 변명하다가, 형벌을 받고 나서 그 제야 복죄(服罪죄를 인정함)하다.

이 관을 신문하니 이 관이 술이 몹시 취하여 정신이 산란하여 말에 차서가 없어, 처음에는 상인이 일찍이 나에게 들은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고문을 당하고는 그제야 복죄하다. 조 흡을 신문하니, 조 흡이 말하기를,

“상인이 일찍이 나에게 들었는데, 내가 방금 군사를 나누어 시위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상인에게 말하기를, 군사는 반드시 상왕이 이를 주관(主管)하셔야 된다, 고 말 하였다.”고 하고, 상인을 신문하니 말이 같으므로, 조 흡은 석방하다. 상인이 또 압술형을 당하고 말하기를, 날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의정 沈 溫을 상왕전의 문밖에서 보고 의논하기를 군사를 나누어 소속 시키는데 갑사(甲士수비군사)는 수요가 적으니, 마땅히 3천명으로 해야 되겠다.” 한즉, 沈 溫이 또한 옳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 또 의논할 일이 있어 날이 저물 때에 沈 溫의 집에 가서, 군사(軍事)는 마땅히 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 하였더니, 沈 溫도 또한 옳다, 고 하였고 또 장천군(長川君)이 이종무(李從茂)를 보고, 군사(軍事)는 마땅히 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 하였더니, 종무가 빙긋이 웃으면서 수궁(首肯)하였으며, 또 우의정 이원(李原)을 대궐문 밖 길에서 만나, 군사를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를 어찌 말할 수 있느냐고 하였다, 고 하다.

**11월 23일** 의금부에서 상인의 말한 바를 상세히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과연 내가 전일에 말한 바와 같이 그 진상(眞狀)이 오늘날에야 나타 났구나. 마땅히 대간(大姦간악한 사람)을 제거하여야 될 것이니 이를 살펴 문초하라”고 하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두 임금의 부자(父子)의 정(情)이 자애하시고 효경(孝敬)하심이 천성으로 지극하심은, 사람들이 누가 모르겠습니까? 전하께서 군무를 청단하심은 오로지 사직(社稷)을 위하신 것이 온데, 이 무리들이 군무를 옮기고자 하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종실(宗室)과 훈척(勳戚)일지라도 어찌 감히 용서 하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참판(參判)과 지사(知事)가 같이 의금부에 가서 이를 국문(鞫問)하라,고 하다. 이것은 큰 옥사(獄事)이니 늦출 수 없다.

“마땅히 이종무도 잡아서 국문하라”하다. 의금부에서 또 계하기를, “이 원이 상인의 간사한 꾀를 듣고도 즉시 잡지도 고하지도 않았으니, 의무를 잃었습니다. 모두 잡아서 신문하기를 청합니다.”

이원과 이종무가 옥에 나아가서 상인과 대변(對辨)하는데, 이원이 상인을 불러 말하기를 “강 (상인)참판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지 말라.”고하다. 종무도 또한 대변하니, 상인이 말하기를 “고초(苦楚)를 견디지 못한 때문이니. 실상은 모두 무함(誣陷없는사실)을 그럴 듯하게 꾸밈)이었다.”고하다.

심 온은 사은사(謝恩使)로 연경(燕京북경)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대변(對辨)할 수가 없었다. 승전색 내관 김용기(金龍奇)가 의금부에 심문한 일을 아뢰고, 아뢰기를 “심본방(沈本房)이 군사가 한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지만은 상왕의 교지(教旨)가 이미 이와 같으시니 장차 어찌하겠는가.”하다. 나라풍속이 장인 집을 본방(本房)이라고 부르다. 주상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용기(龍奇)의 말을 상세히 상왕께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들은 바는 이와 다르다. 과연 이와 같다면 무슨 죄가 있으리오.”하고 즉시 좌의정 박 은을 부르니, 박 은이 병을 핑계로 오지 아니하므로, 상왕이 박 은의 뜻을 헤아려 알고, 원 숙(元 肅)에게 명하여 박은의 집에 나아가서 교지를 전하여 말하기를, “처음 상인(尙仁)의 죄는 대간(臺諫)과 나라 사람이 두 번이나 청하였으니, 내가 그 정상(情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식적으로 운허하지 않고 다만 외방(外方)으로 내쫓기로만 하였는데, 그 후에 생각하여 보니, 나의 여생은 많지 않고 본바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대간(大姦)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다시 그 일을 신문(訊問)하여 이와 같은 사태(事態)에 이른 것이다.

심 온이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군사는 반드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옳다, 고 하였다 하니 경은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 고 하니, 박은이 고개를 숙이고 앞드려 명령을 듣고 즉시 일어나 앉으며 말하기를 “신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호공 묘소전경

# 영의정 靑寧公 沈舜澤

(심순택, 1824~1906)

청송 심문의 마지막 정승, 고종 황제의 오른팔 심순택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정착하다



심재석  
정보편집위원  
문학박사

**1. 活佛을 만나다 :** 고종 황제의 오른 팔 역할을 하신 영의정 심순택 선조님의 행적을 살피다가 평택시 진위면에 '송덕비'가 있음을 알았다. 선조님 사후 그 정경부인 능성 구씨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부처(活佛)'로 칭송 될 만큼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돌에 감사의 마음을 새겼던 것이다. 청송 심문에 이런 선조님이 계셨구나. 많이 들던 경주 최 씨의 적신을 생각하며 그에 못지않은 우리 선조님의 적

선 사실을 알고 가슴이 뛰었다. 6월의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진위로 향했다. 대중회 갑택 문화이사님과 청령공 묘소를 참배하고 향교 앞에 있는 송덕비를 탁본하였다. 관리가 허술하여 거미줄과 먼지들로 비각에 가득하다. 진위면은 과거에 현청 소재지였고,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고장이다.

**2. 심순택은?** 1824년에 태어난 청령공의 간략한 계보는 '은(안효공)→연원→인겸→광세→택현→풍지→순택→상진'으로 이어진다. 조선 최초의 '공작(公爵)' 칭호를 수여받은 청령공은, 27세에 급제하여 충청도 관찰사(51세), 이조판서(57세), 영의정(62세)을 역임하였다. 청령공은 딸만 셋, 양자 상진은 생부가 청령공의 동생인 이택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손자의 위패를 진위군청 가까운 萬奇寺에 안치하고, 그 곳에 며느리가 머물렀던 바, 청령공 사후 정경부인 구씨가 이곳에 저택을 마련하고 정착하면서 터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령공 심순택



청령공 묘소



청령공 신도비

**3. 격동의 세월을 위정자로서 보낸 청령공 심순택 :** 흥선대원군 시기 젊은 관료 심순택은 고종 시기에는 격랑의 세월을 온 몸으로 겪는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고위 관직자로서 처리하였으며, 영의정으로서 청·일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고충을 겪었다. 그리고 아관파천과 대한제국 시기에는 '의정(議政)'으로서 정국을 주도한 청령공은 1905년 나라가 반신불수가 되는 을사조약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였다.

**4. 1905년, 일본이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조약을 맺자 철혈이라고 목숨을 걸고 고종에게 상소하다 :** 청령공은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고종황제에게 간언하였다. "폐하께서는 속히 칙명을 내려 李完用 등 오적을 모두 처단하소서. 그리고 외국의 대사와 교섭하고 사리에 근거하여 담판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회수해 없애 버리소서. 만일 신들의 요청을 윤택하지 않으신다면 내정(內政)은 날로 문란해지고 외국의 모욕이 날로 이르러 마침내 나라가 없어 지고야 말 것입니다. 신들은 대궐의 섬뜩에 머리를 부술 것을 기약하면서 열 번이건 백 번이건 상소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고종실록』 42년 11월 30일)." 같이 상소했던 조병세가 자결하자, 고종황제는 청령공을 불러 간절히 부탁하였다. "경은 죽으면 안 되네, 죽으면 안 되네." [이러한 부탁에도 청령공은] 신의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득불 죽을 것입니다(『청령공신도비』)."고 하면서 원로 대신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 하려 하였다.

**5. 청령공 사후 정경부인 능성 구씨가 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지다!**

1) 금릉학원 설립 : 왕조의 몰락을 지켜보는 공의 심정은 어떠했으랴. 청령공이 별세하자 정경부인 능성구씨는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공의 묘소를 마련하고, 精舍를 지어 본격적으로 거주하였다. 정경부인은 청령공이 남긴 유산으로 구씨학원을 세우고 이것이 금릉(金陵)학원으로 변했으며, 이후 진위국민학교로 편입되었다. 이후 학원 터에 고등국민학교를 세워 운영되다가 진위 중, 고등학교로 합해 진 듯하다.

2) 빈민구제와 무이자 곡식 대여, 연말에 쌀과 반찬 공급 : 정경부인은 청령공의 유산을 이웃을 위해 썼다. 먼저 가난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와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루 시혜를 베풀었으며, 다리를 놓고 도로를 보수하였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조합

을 만들어 근면을 권장하고 춘궁기에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다. 연말에는 쌀과 반찬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숲 뒤에 청령공 묘소가 있고, 숲 앞에 저택이 있었으며 발이 보이는 부근이 금릉학원 터이다.



능성구씨송덕비, 120cm x 40cm



진위향교와 비각

3) 살아있는 부처님(活佛)으로 칭송되고, 송덕비가 세워지다 : 청령공의 사후 그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정경부인 능성구씨는 이름이 具澤喜로, 능성구씨 21세인 具泰和의 2남5녀 중 5번째이다.(『綾城具氏世譜』, 3권 556쪽). 능성구씨는 조선의 명문거족에 속하며 조선 초기 구치관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근래에는 LG그룹의 구씨 일가가 돋보인다. 정경부인 사후 주민들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신 活佛이요, 만인의 별이시라고 칭송해마지 않았다.

**6. 맺음말 :** 이제 청령공 심순택의 자취는 사라져 가고 있고, 능성구씨의 적신을 기억하는 주민도 거의 없다. 다만 진위향교 앞 비각에 있는 '송덕비'만이 100여 년 전의 청송 심문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해주고 있다. 위에서 본 적선의 전통은 우리의 본관인 청송의 심부자택(송소고택)에서도 볼 수 있다. 호박골 심부자 집에 도둑이 들자, 문을 열어 주며 가져가게 놔뒀다는 것이다(심남규, 2008 『내고향 덕천...』 112쪽). 청령공의 신도비문을 찬술한 대제학 김학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심 씨보다 나은 씨족은 드물다(我東氏族罕出沈沈-『심순택 신도비』)"고 찬미했다. 청령공 심순택 선조는 심문의 마지막 정승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철저히 하였다. 공이 돌아가시자 고종황제는 "(심순택은) 품체와 위풍(威風)이 순수하고 단아하며, 성품과 도량이 온화하고 은혜로우며 일에 임해서는 치밀하게 잘 처리하고 차분하고 부지런하였다"고 치하하였다. 이제 우리는 청송 심 씨 가문이 보여 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청령공과 정경부인 같은 선조를 모신 후손들은, 자부심과 더불어 이웃과 나라를 위해 진력하신 전통을 소중히 받들고 이어가야 할 것이다.

◎ **부기 :** 현재 송덕비 자체가 마모되고 있고, 글자가 희미해서 알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문의 자료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는 의미에서 <송덕비> 탁본을 싣고 그 전문을 여기에 옮긴다. ○는 글자가 깨진 부분이다.

<비문 내용> : 정경부인 능성구씨는 영의정 심순택의 부인이다. 부군이 타계하여 그의 묘를 진위군 봉남리의 북쪽에 쓰고 갑인년(1914) 봄에 묘소 아래 精舍를 짓고 살기 시작하였다. 그 부인의 인자하고 후덕하며 자애롭고 선한 마음을 그 누가 우리르고 찬양치 않으리오. 친척이나 이웃 중에 가난하여 음식을 못 먹는 자와 의탁할 곳이 없고 집이 없는 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는 모두 그 부지런함을 막론하고 간절하게 두루두루 시혜를 베풀었다. 학교(黌舍)를 세워 교사를 초빙하고 돈을 내어 다리를 놓으며 도로를 보수하였다. 그리고 자기 소유 토지의 소작인 조합을 만들어 그들의 근면하고 게으름을 평가하여 시상하였다. 매년 봄에는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어 이웃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었다. 음력 12월에는 극빈자를 택하여 쌀과 반찬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 기록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어찌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만구동성으로 이 사실을 돌에 새겨 ○○○○ 대감마님(閔閔)께서 가난한 집(藪屋)에 곡식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 주었으니(濟困扶危),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신 活佛이요, 만인(萬戶)의 길한 별(福德星)이시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 기념하여 돌에 새기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는 바이다.

기미년(1919) 8월 일



眞敬夫人綾城具氏頌德碑  
小作組合考其動息施資助獎每年春無利貸穀於窮民以助除擇其極貧者分給米餅如此盛德美事不可泯滅故萬口同頌也親戚鄰里之貧不能飲食者與無依無家者及生計者皆切周惠設粥舍而遺背後助師以教之捐補重金築橋修路又設  
己未 八月 日立

### 정이공(靖夷公) 詩

정이공(靖夷公)의 휘(諱)는 결(決)이고 공숙공(恭肅公 諱:회(澮))의 아우이다. 보국대부(輔國大夫) 영중추(領中樞)를 역임했다.

〈 諱: 決, 恭肅公 諱: 澮弟 輔國領中樞 〉  
과녁에 활을 쏘는 일에 대한 응제시(應製詩) 二수  
운암(雲巖) 차원부(車原頰) : 조선초기의 운암은 하륜(河崙)과 문제를 일으켜 죄를 입었다가 후에 신원되었다.  
그가 신원된 일을 두고 임금의 명에 의하여 세종 때의 여러 문인들이 시를 지었는데, 차원부설원록(車原頰雪冤錄)에 관련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첫째 수 其一  
神武定禍亂(신무정화란) 신령한 무공으로 화란을 평정하심은  
聖人濟艱難(성인제간난) 성인이 어려움을 구제한 것이라네.  
願享南山壽(원향남산수) 부디 남산처럼 장수를 누리시어  
慢葉令民閒(만엽령민한) 천년만년 백성들을 한가롭게 하소서

둘째 수 其二  
聖君撫東方(성군무동방) 성군이 동방을 어루만지니  
庶類自生成(서류자생성) 만물이 절로 생성한다네.  
日暖草木暢(일난초목창) 따스한 태양에 초목이 무성하듯  
飽得乾坤寧(포득건곤녕) 천지의 편안함을 만끽한다네.  
小臣曾無學(소신증무학) 소신은 배운 것이 없어서  
贊揚殊未精(찬양수미정) 찬양함이 정밀하지 못하나이다.

### 2018년 戊戌年 秋享祭 奉行 日程表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主管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10.17	09.09	수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보광산	大宗會
	中臺墓所	10.17	09.09	수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 중대산	大宗會
二	閭門祗侯公(諱:淵)	10.19	09.11	금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산	大宗會
二	奉翊大夫公(諱:晟)	11.02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三	靑華府院君(諱:龍)	10.21	09.13	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19-6, 묘전	大宗會
三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10.21	09.13	일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4 묘전	大宗會
三	判書公(諱:漣)	11.02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三	上護軍公(諱:鄉)	11.02	09.25	금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四	靑城伯(諱:德符)	10.23	09.15	화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大宗會
四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10.25	09.17	목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大宗會
★時享 奉享時間 : 始祖 12時(正午) 그 외는 午前 11時에 奉享★						
五	都摠制公(諱:仁鳳)	10.25	09.17	목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小宗會
五	判事公(諱:義龜)	11.22	10.15	목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1315(설단)	小宗會
五	知成州事公(諱:繼年)	11.22	10.15	목	광주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小宗會
五	知成州事公 配位 崔氏	11.23	10.16	금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小宗會
五	仁壽府尹公(諱:澄)	10.25	09.17	목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小宗會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主管
五	安孝公(諱:濫)	09.24	08.15	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 산의실	小宗會
五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10.22	09.14	월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小宗會
五	淸原君(諱:淙)	11.15	10.08	목	파주시 문산을 사목리 산14	小宗會
五	현령공(諱:天柱)	11.04	9月未週	일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845	小宗會
五	둔제공(諱:天湜)	11.19	10.12	월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小宗會
六	평산부사공(諱:灝)	11.09	10.02	금	원주시 단계동 사천마을 (설단)	小宗會
六	佐郎公(諱:溝)	11.22	10.15	목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1315(재실)	小宗會
六	愛菴公(諱:涓)	11.24	10.17	토	광주 광산구 감적동 가정산	小宗會
六	良惠公(諱:石雋)	10.28	09.20	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19	小宗會
六	領中樞公(諱:澹)	11.08	10.01	목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小宗會
六	恭肅公(諱:澮)	09.24	08.15	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1	小宗會
六	靖夷公(諱:決)	11.11	10월첫째	일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21	小宗會
六	贈參判公(諱:孝鼎)	10.23	09.15	화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설단)	小宗會
六	延日公(諱:自鼎)	11.18	10월둘째	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小宗會
	恭肅公 養父 康主簿公	10.29	09.21	월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산12-6	小宗會

#### 각종찬조현황 2018. 5. 26 ~ 2018. 7. 25

증보찬조	
1,000,000	공숙공종중(회장 총택)
500,000	민섭(흥천)
300,000	동서울종회(회장 중섭)
200,000	판관공종회(회장 상열)
100,000	용식(전남)
	언촌(수원)
60,000	강채(전남)
50,000	종방(천안)
임원회비	
50,000	홍섭(청송), 상호(안양)

총회찬조	
300,000	인수부운공파종회(회장 정구)
200,000	대구종회(회장 우정)
	광주부운공파선산종회(회장 무석)
장학찬조	
1,000,000	공숙공종중(회장 총택)
500,000	판사공종회(회장 상우)
100,000	란수(서울)

□ 증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심민섭 화백 (흥천)	판사공종회 회장 상우	공숙공종중 회장 총택	안효공파종회 회장 명욱	울산내금위종회 회장 규화
증보찬조 50만원 2018년 7월	장학찬조 50만원 2018년 6월	증보·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 6월	증보찬조 500만원 2018년 4월	증보찬조 150만원 2018년 4월

**심민섭 화백 종보찬조**

종보만화를 집필하고 있는 심민섭 화백은 7월 6일 심대평 대종회장께 종보찬조금 50만원을 전달하였다.



**동서울종회 종보찬조**

지난 7월 24일 동서울종회 중섭 회장을 비롯한 회원 8명은 대종회를 방문하여 청성백선조님의 유훈을 담은 액자와 종보찬조금 30만원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청송청년회 하계 야유회 개최**

청송청년회(회장 남규)는 지난 7. 28(토) 청송읍 덕리 소재 벽절정(碧節亭)에서 청송지역에 거주하는 일가 청년회원 및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하계 친목도모 및 단합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종사(宗事)소식을 전하고 종사(宗事)발전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갖으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울산청송회 9세조 도정공 묘소참배**

울산청송회는 지난 3월 전북 순창군 풍산면 향기리에 있는 9세조 도정공(諱: 淳) 묘소를 참배하였다. 매년 단합대회를 겸하여 가족동반으로 선조님의 묘소를 순회 참배하고 있다.



**부고**



심상화(악은공파 후손) 대종회 부회장께서 지난 7월 25일 지병으로 인해 향년 7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송금안내**

임원회비 · 종보찬조 · 장학찬조 ·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협 : 301-0107-5873-71**

**안효공파종회 심무섭 회장 취임**

안효공파종회는 지난 6월 18일 안효공단오제향을 마치고 25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안효공재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안에 따른 수지예산편성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종원 만장일치로 전 무섭 부회장이 안효공파종회 회장으로 추인되었다.

신임 무섭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 명목 회장님의 업적을 일일이 열거 칭송하고,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송조돈목(崇祖敦睦)과 종인 간에 화합할 것을 강조하고,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종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군대장 진급 및 참모총장 취임**



심승섭  
(좌승지공파 24世)

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해상작전분야 전문가로서, 군사전문성과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국방개혁을 선도할 해군참모총장 적임자로 인정받아 선발되었다.

**영전을 축하합니다!**

- ◇ 법무부 인사
- △ 대변인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 ◇ 대검찰청 인사
- △ 과학수사기획관 심우정
- ◇ 인천지검 인사
-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심학진

**인사발령**



심규정(64세)  
 대종회 재무이사 발령  
 (2018년 7월 31일자)

**당선을 축하합니다!**

직 위	성 명	사 진	직 위	성 명	사 진	직 위	성 명	사 진
강원도 동해시장	심규연		전북 임실군수	심 민		강원도 의회 의원	심영섭	
강원도 의회 의원	심상화		경기도의회 의원	심민자		인천시 서구 의회 의원	심우창	
강원도 태백시 의회 의원	심창보		강원도 평창 군의회 의원	심현정		경기도 고양 시의회 의원	심흥순	
경기도 이천 시의회 의원	심의래		충남 아산시 의회 의원	심상복		전남 곡성군 의회 의원	심인식	
전남 장성군 의회 의원	심민섭		경북 청송군 의회 의원	심상휴		경북 칠곡군 의회 의원	심정보	

**종보 대학생 및 주부 기자단 모집공고**

- 자격
  - 대학생 기자단 : 현재 재학 중인 2년제 이상 대학생
  - 주 부 기자단 : 청송심씨의 배우자
  - \* 청송심씨 일가들의 송조돈목 소식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기사 제공 등 종사(宗事)와 청송심씨종보 발전에 관심 있는 분 [채택기사에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접수기한 : 2018. 8. 6 ~ 8. 31. 오후5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대학생)
- \* 기자단으로 선발될 경우 위촉장 발급 (제출된 서류는 미 반환)
- 제출방법 : 1) 우편-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 47 잔경회관 4층, 청송심씨대종회  
 2) E-Mail- sdmps1174@naver.com 3) FAX 02-2269-7755

**공지사항**

- 1) 청송신문 지 · 파종회의 현황을 재정비코자 하오니, 각 지 · 파종회는 대종회 홈페이지 "대종회 소개-종회결성 및 변동사항" 메뉴에서 서식을 출력(작성)하여 대종회 팩스(02-2269-775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지 · 파종회 결성 및 임원(회장, 총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종회에 즉시 통보요망
-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종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종보찬조 지료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 5)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11권)에 6만원에 보급 합니다.
- 6) 대종회 회장단 및 이사님께서는 임원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